

-(-느)ㄴ다손 치더라도

설령 ~라고 치더라도

논의를 위해 한 가지를 인정한 뒤 그것을 제쳐 둡니다. 양보 어미 중 가장 격식이 높으며, 논증하는 글에 자주 쓰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품사	형태	예
동사	-(-느)ㄴ다손 치더라도	가다 → 간다손 치더라도
형용사	-다손 치더라도	어렵다 → 어렵다손 치더라도
명사	-(이)라손 치더라도	사실이라손 치더라도
짧은 형태	-다손 쳐도	어렵다손 쳐도
뒤 절	입장 유지	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
일상 표현	-더라도	어렵더라도

■ 언제 쓰나요

이 어미는 인용형에 치다(‘셈하다, 간주하다’)가 결합해 만들어졌습니다. 동사는 -(-느)ㄴ다손 치더라도, 형용사는 -다손 치더라도, 명사는 -(이)라손 치더라도를 씁니다. -다손 치더라도 → -다손 쳐도라는 형태도 씁니다.

이 양보는 가정적이고 마지못한 것입니다. 그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허용할 뿐입니다. 그것이 사실이라손 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.

그리고 뒤 절은 그와 상관없이 입장을 굽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논증의 한 수가 됩니다.

다음과 같은 치다를 공유합니다: -(으)ㄴ/는 셈치고. 둘 다 ‘그렇다고 치다’, 즉 뒤의 내용을 위해 무언가를 가정한다는 뜻입니다.

■ 예문

- 1 그것이 사실이라손 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.
- 2 비용이 든다손 치더라도 안전이 우선입니다.
- 3 시간이 부족하다손 치더라도 절차는 지켜야 한다.
- 4 그가 몰랐다손 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.
- 5 직접 만든다손 치더라도 품질은 보장되지 않는다.
- 6 사정이 딱하다손 쳐도 원칙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.

■ 비교

-더라도
논리는 같고 격식이 크게 다릅니다. -더라도는 일상적이고, -다손 치더라도는 격식 있는 논증임을 나타내며 ‘논의를 위해 인정하자면’이라는 뜻을 더합니다.
어렵더라도 하세요. (구어) / 어렵다손 치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. (논증)

-(으)ㄴ/는 셈치고
같은 치다입니다. 셈치고는 행동하기 위해 무언가를 가정하고, 다손 치더라도는 물리치기 위해 가정합니다.
속는 셈치고 해 보세요. (속는다 치고) / 사실이라손 치더라도 (사실이라고 치더라도)

-(으)ㄴ들
둘 다 문어의 양보 표현입니다. -(으)ㄴ들은 보통 수사 의문문으로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결론짓고, -다손 치더라도는 결론을 평이하게 말합니다.
후회한들 무슨 소용인가. (수사 의문) / 사실이라손 치더라도 결론은 같다. (평서)

■ 주의

- ✗ 그것이 사실이라손 치더라도 결론이 바뀝니다.
- 그것이 사실이라손 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.
이 양보는 제쳐 두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. 뒤 절이 물려서면 이 어미가 할 역할이 없어집니다.
- ✗ 비용이 드다손 치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다.
- 비용이 든다손 치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다.
동사는 인용형 -(-느)ㄴ다손을 써서 든다손이 됩니다. 기본 어간에 -다손을 붙이는 것은 형용사뿐입니다.
- ✗ 야, 힘들다손 치더라도 해 봐.
- 야, 힘들더라도 해 봐.
-다손 치더라도는 격식 있는 논증 표현입니다. 대화에서는 -더라도가 자연스럽습니다.